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2호 【루계 제23359호】 주체100(2011)년 2월 11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과 로씨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쭘말리 싸이냐쏜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썸릿 찐다웡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이 꽃바구니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바구니를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군들을 대표하여 후쌈 무쉬르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가 1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역위원회 위원장,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정치리사회 비서,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시 시장, 원동세관총국 총국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들이 1일 나호드까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에게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전인류의 재보로 길이 빛날 김정일동지의 업적

2.16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에서는 집회가, 메히꼬에서는 좌담회가, 프랑스와 타이에서는 영화감상회가 2일과 3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메히꼬로동당, 자주적발전을 위한 프랑스지식인연구협회, 프랑스 빠리 제5종합대학, 쏘르본종합대학,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타이준비위원회,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타이조선친선협회, 타이 라자바트 프라나콘종합대학 그리고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조선의 총대》,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렵니다》가 상영되였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위원장 꼰쓰딴띤 로따루는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이 미국과 당당히 맞서나가는것은 **김정일**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선군령도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적필승의 군력, 선군조선의 기상에서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전인류의 재보로 길이 빛날것이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는 조선인민은 해마다 2월 16일을 최대의 명절로 경축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김정일**각하께서 인민들로부터 얼마나 열렬한 흠모를 받고계시는가 하는데 대한 뚜렷한 증시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일각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은 벌써 현실로 꽃펴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주체사상신봉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중심의 정치, 일심단결의 정치, 선군정치로 조선을 강성대국에로 이끄시는 정치원로이신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로므니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민주꽁고, 프랑스에서 1월 29일과 2월 2일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민주꽁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민주꽁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은젬바 양가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선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의 참다운 령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쟝 마리 람브레는 **김정일**각하의 좌우명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민위천의 사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고계시는 **김정일**각하께서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것은 당연하다.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것이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를 안고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답사자들의 대오가 끝없이 흐른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최근 니까라과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조선혁명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니까라과주체사상연구소조는 그이의 고전적로작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출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에서 1월 31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부 나라들의 사회주의적발전이 우여곡절을 겪고있던 시기에 력사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은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이 로작을 출판한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이 로작을 출판하면서 사회주의위업과 국제로동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메히꼬로동당출판사에서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김정일**동지의 당이며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김일성**동지의 력사, **김정일**동지의 력사이다.

조선로동당은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형의 혁명적당,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출판사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출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에서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대진군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자

최첨단기술개발로 인터페론생산의 공업화 실현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평양예방약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항비루스약물인 인터페론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인터페론은 사람의 몸안에서 비루스의 증식을 억제하면서도 항종양작용이 있는 단백질성물질이다.

C형, B형간염을 비롯한 비루스성질병의 예방과 치료, 암치료에 쓰이는 인터페론은 생물공학기술인 유전자발현기술과 단백질재구조화기술을 리용하여 만들어지고있다.

인터페론생산에 필요한 유전자발현기술은 사람의 건강증진에 유익한 인터페론이 일정한 균에서 보다 많이 생성되도록 세포의 대사과정을 유도하는 기술이며 단백질재구조화기술은 생성된 인터페론이 생물학적활성을 가지도록 해주는 고도기술로서 생물공학제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데서 기본열쇠로 되고있다. 지금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가 독점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 실장 교수, 박사 박영주동무를 비롯한 연구성원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완강한 실천으로 우리 식의 유전자발현기술과 단백질재구조화기술을 개발하여 인터페론생산방법을 최첨단수준에서 확립하였다.

결과 인터페론생성량에 있어서나 생성된 인터페론의 생물학적활성을 보장하는데서 앞선 나라들의 수준을 훨씬 돌파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종전의 인터페론분리정제공정을 간소화하여 원가를 훨씬 낮추면서도 생산량은 무려 1,000배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한해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항비루스약물이 짧은 기간에 생산되여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입게 되였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실리가 큰 기술집약형의 인터페론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나라의 제약공업과 생물공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오현

매일 수천t의 석탄을 더 생산

석탄공업부문에서

뜻깊은 2월에 들어와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희망찬 새해의 첫달전투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월에 들어와 석탄공업부문에서 전달 같은 시기에 비해 매일 수천t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1월의 석탄생산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고 새 탄밭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경제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들의 석탄보장에 우선적인 힘을 넣으면서 서부지구와 북부지구의 중요탄광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고있다.

성의 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이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제남탄광과 봉천탄광, 고건원탄광과 석성탄광을 비롯하여 중요탄광들에 내려가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적극 추진시키고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1월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앞장선 기세드높이 뜻깊은 2월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화풍, 룡림, 립석탄광의 생산능력확장공사를 계속 추진시키면서 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매일 석탄생산계획과 지표별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 첫달전투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덕천지구, 북창지구, 득장지구,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탄광들을 비롯한 서부지구의 탄광들과 경원지구, 온성지구, 함남지구, 명천지구, 천내지구의 탄광들에서 1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하였다.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각지 탄광들에서는 뜻깊은 2월에 더 높은 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총진군하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몫을 맡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제남탄광과 룡등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화력발전소들과 금속 및 화학공장들,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봉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1월 석탄생산에서 발휘하였던 불굴의 정신력으로 뜻깊은 2월에도 생산돌격투쟁을 과감히 벌려 매일 생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각지 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보장단위 로동계급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탄광들에 더 많은 설비부속품과 소공구를 생산보장하고있다.

지금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의 첫달 석탄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뜻깊은 2월에도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주체철생산에서 혁신

청진제강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석탄과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선 청진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주체철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제강소에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는데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제강소에서는 과학기술발전목표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있으며 이 사업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를 세우고 기술자들이 분발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도록 조건보장을 앞세우며 그들을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제강소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또한 주체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완강한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일터마다에 혁신의 기상이 약동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한 로들의 가동률을 높여 많은 량의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이들은 원료와 연료의 배합비률과 장입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하고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회전로직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회전로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주체철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미분탄생산을 맡은 단위에서는 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깐지게 하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앞선 기술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주체철생산에 필요한 미분탄을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성구직장과 내화물직장, 자동화직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농촌을 적극 지원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문천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농촌지원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시안의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들에서는 많은 거름과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시의 일군들은 거름운반전투를 조직하고 자신들부터가 농촌지원사업의 앞장에 서서 가족들과 함께 질좋은 거름을 마련하여 시안의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는 자기 단위와 가정들에서 마련한 많은 량의 질좋은 거름을 농사차비로 들끓는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는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동원하여 자체로 마련한 거름을 농촌에 실어보내는 모범을 보이였다.

장백동안의 일군들과 가두인민반원들도 모두가 떨쳐나 거름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많은 량의 거름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농업근로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지금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촌지원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대고조령도실록은

우리 장군님의 365일, 세월을 주름잡는 강행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가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이 구호가 어찌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그리도 세차게 격동시키는것인가.

그것은 결코 바야흐로 다가온 최후승리와 더불어 느껴지는 희열때문만이 아니다.

어떻게 마련된 오늘의 자랑찬 현실인가.

대고조의 한해한해를 매일과 같이 강행군길에서 보내시며 세월을 주름잡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365일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여서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앞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군민은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장군님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주체97(2008)년 12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건국사가 비껴있는 력사의 땅 강선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강성대국대문의 문턱에 다달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전후시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정신, 그 투지로 선군혁명총진군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할 때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가슴벅찬 순간이였다.

그때 벌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확신하였다. 대고조열풍속에 무섭게 비약하는 강대한 선군조선의 위용을.

력사의 땅 강선에서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주체98(2009)년 새해정초 찬바람부는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새로 건설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시여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줄줄이 뻗어내린 아름드리철관로들과 발전소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지금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소리 강산을 뒤흔들고있다. 비약과 전진의 영원한 무기인 혁명적대고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던 1950년대의 대고조전통을 이어 하루빨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그 신념, 그 의지로 가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대고조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은 그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금성뜨락또르공장, 평양시 경공업공장들과 룡악산유원지를 거쳐 2월과 3월에는 함주군의 동봉협동농장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등 온 나라 방방곡곡에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4월과 5월에도 그리고 뙤약볕 내려쪼이는 무더운 여름에도, 눈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온 한해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천만군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도 365일을 하루같이 강행군길에서 보내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령마루에 우뚝 솟아 빛나게 하시였다.

그 나날 끊임없는 강행군으로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에 대하여 김철의 로동계급은 지난 1월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대고조의 첫해에 무려 30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여 세상을 놀래우고 두번째 해인 지난해에는 그보다 더 많은 단위들을 찾으시여 만사람을 울린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장정에 낮과 밤이 따로 있었던가, 명절날, 휴식날이 따로 있었던가.

평양으로부터 2 000리나 멀리 떨어진 여기 북방의 철의 기지에만도 지난 두해동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차례씩이나, 그것도 좋은 날, 좋은 길이 아니라 제일 추운 날, 제일 험한 눈길을 헤치시며 찾아오시였다.

힘겨울 때도 그립고 기쁠 때도 뵙고싶은 아버지장군님이시건만 피로가 쌓인 장군님의 영상을 뵈옵고 나서는 장군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뵙고싶은 마음 간절하건만 그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겨울날만이라도 제발 이런 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눈물흘리며 아뢰고 또 아뢰인 우리들이였다.》

오로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절세의 위인의 대고조강행군에 무한히 고무된 김철의 로동계급은 지난해 당과 인민앞에 다진 맹세대로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끝끝내 주체의 쇠물을 뽑아냈다.

어찌 김철의 로동계급만이랴.

온 나라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강행군자욱에 보폭을 맞추어 지난 2년동안에만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창조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와 두번째 지하핵시험의 성공,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생산의 튼튼한 토대 마련, 대계도간석지의 승리적완공…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강행군을 떠나 세월을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생각할수 없다.

사랑과 믿음에는 충정과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강행군과 더불어 빛나는 지난 2년동안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에서 세계는 더욱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지난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계기로 천백배로 굳건해진 령도자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당을 따라 찬란한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의 혼연일체가 이제 얼마나 강대한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가를.

본사기자 리성국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강의 무기로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실록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키우신것이다. 지난 2년간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고 도처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거대한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질수 있은것은 바로 사상을 기적창조의 보검으로 틀어쥐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심장에 지펴진 혁명적인 사상정신의 불씨에 의하여 타오르는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땅 강선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때로부터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온 나라가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로작을 발표하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바탕과 력사적뿌리,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할 정신적풍모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강성대국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투철한 혁명성과 심오한 과학성으로 일관되고 무비의 담력과 비상한 열정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은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였다. 대고조진군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고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최첨단을 돌파하는 경이적인 기적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고조령도의 나날에 발표하신 로작들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 백과전서적인 강령적문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질데 대한 사상,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한 사상들을 밝히시여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로작들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마련해주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희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릴데 대한 로작과 알곡생산에서 혁신적앙양을 일으켜 식량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로작, 모든 힘을 집중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데 대한 로작, 경공업과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로작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10년, 20년을 도약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일군들의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로작과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2년간의 대고조진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추동되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전변을 이룩한 영웅서사시적행로이다.

본사기자 홍병우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안으시고

크나큰 믿음과 기대

주체97(2008)년도 다 저물어가는 12월의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리마의 고향 강선을 찾으시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심중은 참으로 감회깊으시였다.

기업소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력력히 어려와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헌신과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가슴뜨겁게 보여주는 위대한 력사의 체험자, 증견자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굴지의 대야금기지로 전변되였으며 강선의 로동계급은 시대를 개척하는 선구자, 영웅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강선과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추억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후 이곳을 찾으시여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강선의 로동계급의 심장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을 달아주시였다.

정녕 강선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우리 혁명앞에 중대한 과제가 나설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을 강철로 충직하게 받들어온것처럼 그 위대한 전통을 이어 오늘도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실현하는 길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맨 앞장에 서길 바라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였다.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녕원발전소를 찾으신것은 주체98(2009)년 4월 어느날이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신데 이어 언제에 오르시였다.

선군조선의 기상인양 하늘높이 솟아오른 거창한 언제, 푸른 물 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

강성대국건설사에 길이 전해질 위대한 창조물을 보시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녕원발전소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시면서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수령님의 유훈이 드디여 빛나게 관철되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천만군민이 일떠세운 기념비적창조물을 보실 때마다 거기에 깃든 우리 수령님의 로고부터 생각하시며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말씀은 나직하나 천만근의 무게를 안고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본사기자 김철혁

대대손손 전해갈 시대어

전진과 비약의 시대는 격동적인 시대어들을 낳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아래 매일, 매 시각 새로운 혁신과 영웅적위훈이 창조되고있는 오늘의 대고조시기에 얼마나 많은 시대어들이 태여나 세인을 격동시키고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륭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희천속도, 대계도의 기적, 원흥땅의 사과꽃바다, 강성대국의 불보라, 주체섬유와 주체비료폭포…

이 하나하나의 시대어들에 대고조강행군으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전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돌이켜볼수록 대고조의 첫해인 주체98(2009)년 9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뜨겁게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언제건설장을 돌아보시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위대한 속도가 바로 선군정치의 기초인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사에 참가한 전체 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로 하여금 희천발전소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속도, 희천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만방에 떨쳐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오늘날 폭풍치며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속도, 희천속도는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손길아래 창조되였다.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자들이 앞으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고 주체철생산체계가 훌륭히 완성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서는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김철로동계급이 대고조의 전렬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시대어들은 그대로 장군님의 대고조혁명실록의 축도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고조시대어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더없이 귀중한 재보로 심장깊이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대대손손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주체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는 현대적인 주물품생산기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선군시대의 빛나는 창조물로 일떠선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번영하는 선군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찬란히 빛날것이다

주체공업발전력사에 아로새겨질 다계단사변들

뜻깊은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주체공업의 발전력사에 아로새겨질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지나온 투쟁의 나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른 때로부터 2년 남짓한 기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남들같으면 10년, 10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변혁들을 이룩하며 이 땅에 선군천리마를 불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주체97(2008)년 1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천리마의 고향 강선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안고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강선의 로동계급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사람의 정신력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정신력만 강하면 맨손으로도 쇠물을 끓여낼수 있고 빈터우에서도 락원을 일떠세울수 있다.

이들의 결의는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련합기업소의 크고작은 모든 생산공정을 활성화의 궤도에 올려세웠고 대고조의 첫해 첫달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고 많은 강철을 생산하여 선구자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선을 찾으시여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료원의 불길마냥 전국도처에 세차게 타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150일전투, 100일전투의 장엄한 포성으로 2012년에로 향한 총진군대오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주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공장에서 전선으로, 전선에서 건설장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종횡무진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련이어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강선의 로동계급이 대고조의 첫해에 비약적인 강철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을 때 성강의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는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우리의 미더운 탄부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첫해에 지난 시기보다 석탄생산을 1.5배로 장성시키는 대비약을 안아왔으며 북창의 동력기지의 로동계급은 매일 평균 수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150일전투기간에만도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근 100만t의 물동을 더 실어날랐다.

금속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중요단위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첫해에 년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돌파하였다.

지난해 인민생활향상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펼친 우리 당의 구상과 작전은 또 얼마나 웅대하였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초에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데 이어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대고조진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주체공업의 위용을 높이 떨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각지 근로자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만장약된 영웅적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다시한번 총폭발시킨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대고조진군의 나날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체공업발전력사에 아로새겨질 대경사를 련이어 안아왔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지닌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으로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안아왔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비날론대경사로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남흥땅에서 주체비료폭포가 쏟아지고 대계도간석지가 성과적으로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이 련이어 마련되였다.

어찌 이뿐이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적인 내화물공업발전에서 자랑찬 전변이 이룩되고 북부와 서부, 동부지구에 CNC화가 훌륭히 실현된 만점짜리 공장들이 늘어나 주체공업의 막강한 잠재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도 현대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한 대규모의 경공업기지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생산능력이 크게 확장되였다.

평양곡산공장의 전변에 이어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이 불과 몇개월사이에 천지개벽하였다.

각 도들에 종합적인 식료품생산기지들이 멋들어지게 일떠서 생산에 들어가고 수많은 지방공업공장들이 현대화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날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정녕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로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온 지난해의 보람찬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불면불휴의 탁월한 령도로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 대고조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최첨단을 돌파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보람찬 대고조의 날과 달들을 뜨겁게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속에 뿌듯이 안겨지는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내 조국은 당당한 과학기술강국!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이 더욱 높이 올라선 강국의 지위,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주체과학기술의 거대한 위력의 과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 우주기술과 핵기술, 콤퓨터기술을 비롯한 일련의 첨단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수준의 현대적공장들을 수많이 일떠세운것은 우리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첫해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지구를 우주로 오르던 그날의 박차고 감격과 환희를 잊지 못하고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총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의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장과 발사후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국산화한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소식에 온 나라가 끓고 세계가 들끓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에는 지구를 통채로 울리며 제2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세계는 우주에 닿은 조선의 힘,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선군조선의 위력을 똑똑히 보았다.

지난해에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핵융합기술개발의 커다란 성과로 세계를 놀래웠다.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쥔 《련하기계》개발자들의 모범을 따라 온 나라에 CNC열풍이 휘몰아쳤다.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과학기술적잠재력을 과시하는 이 최첨단돌파의 열풍, 비약의 폭풍과 더불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목표가 더욱 높아졌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평양곡산공장과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이 기술개건되여 당과류생산의 전문화, 현대화, 과학화가 실현되고 대규모련속생산공정들에 대한 콤퓨터통합조종체계가 완비되였으며 룡성식료공장의 현대화, 무균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평양양말공장에서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말생산공정에 대한 콤퓨터통합생산지휘체계가 훌륭히 완성되였으며 보통강신발공장과 9월방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경공업공장들이 현대화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1대잡종벼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농작물들에 대한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우렝이에 의한 유기농법,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비롯한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들이 수많이 도입되였다.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고 최첨단교류기관차가 개발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련하기계》개발자들은 고성능형의 최첨단CNC설비인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였으며 세계적인 공작기계공장, 21세기의 표본공장인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을 일떠세움으로써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단연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를 마련하였다.

대고조의 불길과 더불어 우리식 축포공업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희한한 성과도 이룩되였다.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는 우리의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첨단돌파로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과시하는 위력한 보검으로 위용떨칠것이다.

본사기자 려 명 희

현대화의 위용떨치는 경공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따라 우리의 경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가까운 앞날에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고귀한 재부

인민생활향상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수많은 소비품생산기지들이 최첨단수준에서 현대적으로 꾸려졌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날론이 쏟아진데 이어 함흥모방직공장에 견절방적사생산공정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평양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평양양말공장에 인견천생산기지, 편직사생산기지, 갖가지 종류의 양말생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

방직, 편직공업부문의 여러 공장들에서 중요생산공정이 현대적으로 개건됨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서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신의주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흥남구두공장, 혜산신발공장을 비롯한 각지 신발공장들의 현대화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보통강신발공장에 새로운 구두창생산기지가 꾸려져 신발의 질적개선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대동강식료공장과 각 도에 꾸려진 종합식료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여 우리의 식료공업은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뛰여올라 질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이 생산되고있다.

국산화비중을 높인 긍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많은 원료를 우리의것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 그 비중을 훨씬 높이였다.

얼마전 8월풀가공공장에서는 8월풀로 당가루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당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또한 여러 경공업공장들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많은 원료와 부속품들을 국산화하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제화흐름선과 여러 단능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있으며 신발생산에 필요한 여러 보조자재들을 우리의 원료로 생산하여 신발공장들에 보내주고있다.

방직, 편직공업부문에서는 철편직기부속품과 고급편직바늘을 제힘으로 생산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를 우리의것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경공업제품원료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그 전망은 날로 좋아지고있다.

때벗이한 지방공업공장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지방공업은 날로 비약하고있다.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들이 각 도에 훌륭히 일떠서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갖가지 식료품들이 쏟아지고있다.

각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수준을 훨씬 높이였다.

회령시, 강계시, 맹산군, 리원군을 비롯한 각지 시, 군들에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많이 일떠세웠으며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지표들을 찾아쥐고 생산을 늘여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지금 각 도,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지방공업공장들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에 맞는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옥

* 주체비료생산의 거센 동음 *

나라의 대화학기지인 남흥이 무섭게 용을 쓰며 주체비료생산의 거센 동음을 울리고있다.

얼마나 가슴후련하고 자랑스러운 화폭인가.

누구나 남흥에 와보시라.

그러면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게 되리라.

일찌기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현실로 꽃피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남흥의 전변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본다.

우리 수령님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화학공업을 주체화하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남흥땅에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자랑찬 현실을 펼쳐주시였다.

그 사연 담아싣고 주체비료생산기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 청 일

단상 선경마을

얼마전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을 찾았던 나는 절로 감탄이 터져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마을,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후생시설들, 기계화의 동음 노래처럼 울려퍼지는 전야…

참으로 희한한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진것이였다.

천지개벽된 장산리의 새 풍치는 나의 취재길을 재촉하였다.

농장일군의 안내로 문화회관이며 새 살림집들을 기쁨속에 돌아보고났을 때였다.

《자, 이젠 살구동네로 가봅시다.》

일군의 말에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장산리에도 살구동네가?)

나의 눈앞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솟아난 사리원시 미곡리의 살구동네가 떠올랐던것이다.

얼마후 나는 살구동네를 돌아보면서 또다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이름처럼 풍치를 보나 집안팎을 보나 미곡리의 살구동네와 꼭 같았다.

《어딜 가나 선경마을을 볼수 있는것이 우리 농촌이 아닙니까.》

농장일군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선경마을, 나는 저도모르게 이 말을 외워보았다. 그러자 수양버들 휘늘어진 양어장을 앞에 끼고 파일나무숲을 병풍처럼 둘러친 속에 들어앉은 서흥군 범안리와 백학이 떼지어 내려앉은듯 한 아름다운 태천군 은흥리마을 등 각지의 선경마을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순간 나의 가슴은 강성대국의 그날 우리 농민들이 살게 될 훌륭한 살림집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 눈오나 비오나 농촌들을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가 뜨겁게 미쳐와 한없는 격정으로 설레였다.

선경마을,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펼쳐진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새 모습이였다.

나는 《선경마을》이라는 날말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농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대명사로, 복받은 농민들의 행복의 대명사로 길이 전해지리라는 생각으로 오래도록 살구동네를 떠나지 못하였다.

본사기자 황 연 옥

농업전선에 비약의 본보기를 마련한 경쟁의 불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헌신성과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안고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온 보람찬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화폭이 사회주의농촌에 펼쳐진것인가.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의 앞장에 선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자체의 힘으로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한 룡천군 신암협동농장과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두벌농사를 잘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랭해가 심한 불리한 자연기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동해안농사에 종지부를 찍고 변혁을 이룩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어찌 이 단위들뿐이겠는가.

북부고산지대의 백두삼천리 벌로부터 연백벌의 협동농장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모든 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본보기농장들의 모범을 따라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강성대국의 대문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포전마다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사회주의협동벌에 몰아치는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알곡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토대가 확고히 마련된 긍지높은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현지지도의 길을 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강성대국의 농촌건설과 농업생산의 본보기를 마련하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을 헤치시였던가.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의 농장들을 련이어 찾으시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짓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과 같이 거세찬 경쟁열풍이 온 나라 협동벌에 몰아칠수 있은것이다.

그 경쟁의 열풍속에 본보기단위들은 더 앞서나가고 다른 단위들은 맹렬한 추적전을 벌리는 전례없는 현실이 펼쳐졌다.

서해지구, 동해지구를 비롯한 우리 농촌의 그 어디를 가보나 새 혁신이 창조되여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고있다.

올해공동사설의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농사차비로 들끓고있는 지금 온 나라 도처에서 경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더욱 과감히 뛰여들어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오국리사람들의 심정만이랴.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사차비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과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두벌농사를 적극 내밀 결심밑에 거름실어내기를 다그치고있는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도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칠 맹세가 비껴흐르고있다.

운전군 운하, 문덕군 립석, 룡천군 산두협동농장을 비롯한 서해지구 농장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 때 동해지구의 많은 농장들이 농사차비를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기고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각지 농촌들에 휘몰아치는 새로운 위훈창조의 경쟁열풍, 이것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숨결이고 기상인것이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오늘도 이런 의지안고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모두다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더 힘차게, 더 빨리 앞으로!

본사기자 윤 용 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는 교육

온 나라에 타번지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기간 교육부문 일군들이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만드는것, 이것이 우리의 주체교육이 점령해야 할 높은 목표이다.

최첨단돌파의 열풍속에 교육부문에서는 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전국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첨단과학기술과목들이 개척되고 많은 과목의 교육내용이 현대화되였으며 원격교육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할수 있는 토대가 그쯘하게 갖추어졌다.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기초교육, 원리교육이 강화되고 보통교육부문에서 다매체직관물에 의한 교육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것은 최첨단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교육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수많은 대학들에 전자도서관이 훌륭하게 일떠서고 전문학교, 중학교들에 전자도서열람실이 특색있게 꾸려지고있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수많은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이 제작되여 교수와 실험실습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많은 교육단위들에서는 자체의 홈페지구축과 교육행정관리의 콤퓨터화, 모든 학과목들의 원격교육화를 실현하였다.

보통교육부문에서 콤퓨터와 다매체편집물을 리용한 교수와 실험실습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다.

교육과학을 발전시켜 나라의 교육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과학기술의 기초인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분야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정보기술제품들과 3 0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제품들이 출품된 청년절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의 과학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1 400여건의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이 전시된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전시회를 비롯한 수많은 경연과 전시회들은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높은 수준에 올라선 주체교육과학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교원, 연구사들속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실험실습설비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물론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 과정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연구성과들도 수없이 많다.

참으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해온 나날들은 교육부문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만들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창조와 혁신의 보람찬 나날들이였다.

본사기자 리 은 남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대규모의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농업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0일 당창건기념탑광장과 녀성회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농근맹, 녀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재령군농근맹위원장 리승록,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윤희,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농업근로자 문명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륭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은 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사적대경사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선경들이 도처에 펼쳐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하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며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그들이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켜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대성구역녀맹위원장 김승실, 대동강구역 룡라2동 초급녀맹위원장 장미화, 락랑구역 녀맹원 김정심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륭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가는 대고조진군길에서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녀성들의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성들을 시대의 혁명가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이 있어 우리 녀성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치며 선군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올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원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녀맹원들은 여러가지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중요전투장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과 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온 나라에 선군생활문화창조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원군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아들딸들을 시대의 영웅들로 훌륭히 키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녀맹조직을 더욱 강화하며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2.16경축 중앙사진전람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밀영에 서계시는 사진이 전람회장정면에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주체의 강성대국건설과 인류자주위업,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비롯하여 30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주석단》,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축포야회》 등의 사진들은 백두산의 아들이시며 걸출한 정치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과 환희를 보여주고있다.

백두령장의 선군혁명실록을 화폭에 담은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인민군군부대산하 대동강맵장어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등의 사진들도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해의 날바다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대계도간석지》를 비롯한 사진들은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을 보여주고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지난해 두차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통하여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수록한 사진들도 전시되였다.

사진전람회개막식이 10일에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강능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안동춘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성, 중앙기관예술소조종합공연

2.16경축 성, 중앙기관예술소조종합공연이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혼성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 설화와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혼성2중창과 남성중창 《매혹과 흠모》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특출한 령도력으로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애국헌신의 장정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녀성2중창과 남성중창 《선군승리옹헤야》, 혼성4중창과 소합창 《주체철 제일이야》, 민족기악병창 《행복의 니나니 난노》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사에 특기할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할 혁명적열의를 담아 출연자들이 무대에 펼친 혼성중창 《비약의 속도 CNC바람》, 《군가에 발을 맞추자》, 시와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시와 합창 《승리의 길》로 끝난 공연은 우리 당의 군중문화예술활동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을 위한

영화감상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국가영화위원회에서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을 위하여 10일 대동문영화관에서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박춘남 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예술영화 《행복의 수레바퀴》를 감상하였다.

캄보쟈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촌 하이 주조 캄보쟈왕국 특명전권대사가 10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근광, 박길연, 리명산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캄보쟈왕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촌 하이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삼가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와 노로돔 시하누크대왕페하께서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각하와 노로돔 시하모니국왕페하의 깊은 관심속에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견지하고있는 평화적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김영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마음을 안고 형제적캄보쟈인민이 우리 인민과 함께 2월의 명절을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노로돔 시하모니국왕페하의 지도밑에 캄보쟈인민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모니국왕페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보다 훌륭한 친선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2.16경축집회 로씨야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8일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여있었다.

집회에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모즈고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부위원장 와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김정일**동지는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국가정치활동가,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격찬하면서 그이를 총비서로 모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는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이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뿐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으로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선군정치야말로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찬양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부디 건강하실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

경축공연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의 경축공연이 6일 따슈껜뜨에서 진행되였다.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과 따슈껜뜨주 문화국 일군들, 시민들 그리고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먼저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항일대전을 벌리시던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지금 조선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모든 동포들이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조국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독창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 《선군닐리리》, 《통일아리랑》, 무용 《고향집 서리꽃》, 《영원히 안고살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조선중앙통신】

제20차 백두산상국제 휘거축전이 진행된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제20차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다.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속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의의있고 특색있는 체육축전으로 되고있다.

빙상무용, 쌍, 개인종목들에 대한 모범출연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축전에는 세계휘거선수권대회와 유럽휘거선수권대회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여러 나라의 명수들과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우리 나라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

제20차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달리는 순결한 마음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앞을 다투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진 량강도안의 중학교졸업반학생들과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답사행군대 대원들은 관리원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에 많은 관리도구들을 넘겨주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며 조국수호와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철석의 결의를 다진 인민보안부, 철도성 답사대원들은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를 더 잘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재들을 넘겨주었다.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긍지를 안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평성의학대학 교원, 학생들은 관리원들의 헌신적노력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해온 관리도구들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평양정오중학교, 평양축전소학교, 평양팔골소학교 교원, 학생들은 관리원들과 함께 혁명전적지관리사업에 참가하였다.

근 20년간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혁명유적유물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는 화대군 창촌중학교 교직원들과 졸업반학생들의 진정은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종업원들을 감동시키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소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숭고한 발현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다과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학생소년들의 주체100년 설맞이모임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다과회가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과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리영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최룡해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예술단성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돌려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설맞이모임에서 예술단성원들은 총련의 대를 꿋꿋이 이어가려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의지를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잘 보여주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일군으로 자라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단장 윤성진이 연설하였다.

그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설맞이모임에 불러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체류기간 예술단성원들이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은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굳게 믿고 따르는 총련의 주인공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다과회에서는 평양시내 학생소년들과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의 련환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과 도이췰란드사이의 외교관계설정 10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10돐에 즈음하여 게르하르드 티데만 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0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의춘외무상,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종혁 조선도이췰란드친선의원단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도이췰란드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대통령 크리스티안 울프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도이췰란드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경공업과학분원 향료 및 화장품공학연구소에서

현실성있는 연구성과를

경공업과학분원 향료 및 화장품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같은 열의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소장 리성만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발전을 과학기술로 추동하는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자고 하면서 과학자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화장품미생물연구집단은 기능성화장품평가방법을 확립하는데 모를 박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항산화능측정방법을 세웠으며 미백효과성을 높이는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이곳 과학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경공업공장들에 도입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향료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실천에서 제기되는 연구종자를 틀어쥐고 천연향료로 오래된 종이의 부식을 막고 보존기일을 늘이기 위해 창조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들은 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이를 부식시키는 미생물을 없앨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애국의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과학자들은 개별적향료들의 항균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것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조합향료처방도 작성하였다.

화장품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낮에 밤을 이어 긴장한 전투를 들이대여 천연물에서 추출한 액으로 여드름을 방지하고 치료할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해당단위의 기술자들과 창조적힘을 합쳐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은 이미 이룩한 연구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과학자들을 잘 이끌고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물질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당과류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향료를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화장품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또한 가루비누의 세척력을 보다 끌어올리고 세수비누생산을 위한 염석공정을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추면서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조국통일운동의 승리를 담보하는 백승의 령도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쌓이고있지만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위업의 전도를 락관하고있다. 그것은 절세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대행진을 진두에서 이끄시기때문이다.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였기에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온 겨레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계승하여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는것을 숭고한 력사적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온 민족을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전도는 령도자의 자질과 품격에 의하여 좌우된다. 력사적교훈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민족이 쇠퇴몰락하지만 령도자가 위대하면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세대에 맡겨진 력사적사명이며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을 지닌 위인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이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사상리론적풍모에 기초한 과학적인 령도이다.

예지는 위인의 등불이며 령도자의 위대성은 곧 사상리론의 위대성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21세기의 정치거장이시며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지향,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과학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은 가장 정당한 민족운명개척의 지침이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백승의 전략전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신것은 민족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민족대단결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길을 명시해주는 불멸의 통일강령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주통일의 희망이 밝아오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오늘도 6.15통일시대의 승리의 표대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은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과 그 이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사변적성과들, 북과 남, 해외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민족자주정신과 날로 강화되는 전민족적인 련대련합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방침들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가리켜주신 자주통일의 한길을 따라 우리 민족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계속 기운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는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민족단합의 거대한 위력으로 조국통일위업을 활력있게 전진시키는 위대한 단결의 령도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민족성원들을 하나로 단합시켜야 한다. 단결은 민족자주위업수행의 최강의 무기이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애를 민족대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내세우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신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것은 민족성원들의 고유한 심리이다. 열렬한 애국심,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착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특질이다. 온 겨레가 조국애와 민족애에 기초하여 힘을 합치고 단결하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능히 성취될수 있다. 조국애, 민족애를 민족대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내세우시여 사상과 제도, 정견과 주의주장이 다른 해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신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공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고매한 인덕은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에 떨쳐나서게 하는 정신적자양분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하시는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다. 사상과 리념우에 민족을 놓으시고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애국자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도량과 포옹력은 지난날 반역의 길을 걷던 사람들도 애국의 길로 방향전환을 하게 하는 광폭의 도량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모두 한품에 안아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는 무한대한 포옹력이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애국애족의 뜻에 매혹되여 장군님을 따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를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높이 칭송하며 장군님을 민족대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모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그것은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는 역경을 뚫고 조국통일위업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는 백승의 령도이다.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켰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 6.15통일시대를 펼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결코 떼여놓고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령활무쌍한 지략과 세련된 령도예술로 언제나 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잡으시고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조국통일위업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나가신다. 끊임없이 격변하는 정세의 흐름속에서 사태의 본질과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전략전술적방도를 밝혀주시는 그이의 천재적인 지략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부단히 전진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 민족은 지나온 년대들을 조국통일운동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로 빛나게 장식해올수 있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은 추호의 동요와 답보도 없이 활력있게 전진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련대와 련합은 강화되고 전민족적판도에서 통일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갔다.

6.15통일시대가 펼쳐지고 반세기이상의 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변적인 성과와 기적들이 민족사의 갈피갈피에 력력히 새겨졌다.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한 속에서도 공화국의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 우리민족끼리리념은 통일운동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다.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전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조국통일위업의 백승의 담보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로 승리할것이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계시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통일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이 땅우에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남조선 각계 격찬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령도력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련합뉴스》, 《MBC》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3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모든것을 집중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재령광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어랑천발전소건설장,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등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시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신데 대해 전하면서 언론들은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전력, 금속, 화학,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련일 고심하고계신다.》고 격찬하였다.

특히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특출한 령도력에 의해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종전같으면 10년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규모의 공사를 몇해사이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고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승리적으로 완공되였으며 CNC기술의 발전,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대서특필하였다.

또한 각계층 인민들은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지휘하고계시는 백두의 선군령장을 우러르며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은 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위대한 사랑의 자욱이다.》,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다.》고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원 김진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시찰길은 이북민중의 기쁨이 커지고 나라의 재부가 늘어나는 길이다. 부강번영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민중화원이 더욱 개화만발하는 로정이다. 민중을 찾으시는 장군님의 걸음걸음에서 이북민중의 행복과 번영이 열매로 주렁지고있다.

울산의 한 로조원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근로민중의 무궁무진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계신다.》고 피력하였으며 태양회 회원은 《민중을 위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고 칭송하였다.

한 통일운동가는 자기의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북은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승승장구하고있다. 선군정치를 앞세워 **김일성**주석의 념원을 실현하시려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우리 민족의 대전성기를 이룰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오늘도 공장으로, 농장으로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진정 우리 민족의 령도자, 온 겨레가 우러르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본사기자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책동 규탄

남조선의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이날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리규재, 사무처장 리경원, 선전위원장 최은아에 대한 조사를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전례없는 사태로 축산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날마다 세금이 불어나며 물가가 폭등하여 민중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동족대결에만 매달리며 북의 대화제의를 뿌리치고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폭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고 단체는 단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대화분위기에 맞지 않는 탄압소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파쑈통치의 악랄한 수단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탄압에 광분하는 반통일, 전쟁대결세력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한나라당》의 권력유지책동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8일 민생문제해결을 외면하고 권력유지만을 위해 책동하는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한나라당》이 당사의 문을 안으로 걸고 바깥출입을 금지한채 개헌론의에만 몰두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번의 개헌론의가 현 집권세력이 어떻게 하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임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지금 민중이 구제역과 물가폭등 등으로 하여 살아가기가 더없이 힘든 때에 락상공론만 하는것이 말이 되는가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한나라당》이 그 무엇으로도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심각한 대학등록금문제

최근 남조선에서 대학등록금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7일 한 관계기관이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6%이상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대답하였다. 대학생들은 학비를 마련할 때까지는 한 학기 또는 2년이상의 기간이 걸릴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암담한 처지를 개탄하였다.

본사기자

거족적인 반전평화투쟁은 시대의 부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전진시키는것은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해 북남관계는 사상최악에 이르렀으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한 상태에 놓이였다.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는 가셔지지 않고있다. 현실을 놓고볼때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고있다.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지로부터 얼마전 우리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북남사이에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시급히 개최할데 대한 중대제안을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그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도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책동을 그치지 않고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지어 적대시하는 대결적폭언이 계속되고있으며 북침을 노린 불장난소동들이 그치지 않고있다.

이러한 속에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본격화되고있다. 현사태는 내외로 하여금 조선반도의 대결상태에 대한 심각한 위구심을 안겨주고있다.

현실은 온 겨레가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로부터 얼마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떨쳐나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킬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한것이다.

반전평화투쟁의 기본과제는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는데 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오늘의 비극을 강요한 장본인이다.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알륵을 조장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며 그로부터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미국의 책동은 의연히 계속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며 북남사이에 불신과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미국의 책동을 용납치 말아야 하며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은 실전을 위한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이 땅에 핵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날로 로골화되는 남조선, 미국, 일본의 3각군사동맹조작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또 하나의 근원으로 된다.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는 외세의 식민지노예살이가 남겨준 력사의 상처가 피멍으로 새겨져있다.

자기의 말과 글, 이름과 력사를 깡그리 빼앗기고 민족적존엄과 권리는 물론 자기의 청춘과 목숨마저도 외세에게 제물로 바쳐야 했던 비극의 력사를 우리 겨레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민족수난의 비극은 더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

평화와 전쟁책동은 량립될수 없으며 전쟁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평화가 보장될수 없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은 우리 겨레가 어떤 각오와 투지를 가지고 반전평화투쟁을 벌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늘의 엄혹한 난국을 타개해나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겨레가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과감한 반전평화투쟁에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가 있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적전진이 있다.

해내외 온 겨레는 거족적인 반전평화투쟁의 절박성을 깊이 새겨안고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우수한 민족성은 우리 겨레의 자랑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망속에 올해의 날과 날이 흘러가고있다. 력사의 유구성에 있어서나 문화전통의 우수성에 있어서나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이기에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통일강성대국의 래일을 앞당겨오려는것이 온 겨레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총명하고 분명하며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조선민족의 우수성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온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자랑높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다. 우리 선조들은 세계5대문화의 하나인 대동강문화를 창조하고 대대로 이 땅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살아왔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인류가 발생하여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구석기시대이래의 원시문화와 5000여년전부터 개화발전하기 시작한 고대문화의 유물, 유적들이 수없이 발굴되였다.

단군릉의 발굴은 우리 민족이 5000여년전에 나라를 세운 문명한 민족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단군릉발굴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민족의 원시조를 찾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고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력사적사실이 확증되게 되였다. 우리 민족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자랑높은 민족이며 그 유구성과 단일성은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이 땅에서 일찍부터 꽃펴난 문화전통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세계에서 금속활자나 측우기와 거북선 등을 제일먼저 만들어 리용한 사람들도 다름아닌 우리 조선민족이였다.

뿐만아니라 고유한 우리 말의 표기수단으로 창제된 훈민정음, 세상에 이름높은 고려청자기와 조선화, 세련되고 장중한 형태와 뛰여난 건축술, 우아하고 섬세한 금속공예술을 보여주는 개성남대문과 연복사종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유산들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립증해주고있다.

단결력이 강한것도 민족적우수성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이 단결력이 강한것은 단일민족으로 예로부터 한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것과도 관련된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집단놀이와 집단경기를 즐겨한다. 줄당기기는 우리 민족이 즐기는 민족체육의 하나이다. 줄당기기는 집단의 단결과 행동일치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경기로서 단합과 단결된 힘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성격상특성을 잘 반영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강한 단결력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온 민족이 떨쳐나 피어린 투쟁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우리 민족은 단결하여 싸우면 아무리 대적이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였으며 그럴수록 더욱 강한 단결력을 지니게 되였다. 온 민족이 남녀로소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거족적으로 떨쳐나 외래침략자들을 쳐부시는것은 력사적과정을 거치면서 우수한 민족성의 하나로 굳어지게 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끈질긴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도 자랑스러운 민족성의 하나인 단결력의 생동한 실례이다.

우리 인민은 온 세계가 그토록 흠모하며 칭송해마지않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의 민족성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온 겨레가 조선민족이 세계에 자랑높은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애국의 열정과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조선학교지원 문제해결 주장

일본사회민주당 부당수와 정책심의회 회장이 7일 수상관저에서 내각관방 부장관들을 만나 조선학교지원문제를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조선학교에 지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수속을 정지시킨 조치를 시급히 해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부당수는 기자들에게 조선학교지원제도적용은 정치정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피해 확대

남조선에서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6일 부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지역이 9개도, 시의 153곳으로 늘어났다.

매몰처리된 집짐승은 315만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조류독감도 급속히 퍼져 발생지역이 40곳으로 늘어났고 540만마리의 닭, 오리 등이 도살처분되였다. 특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짐승들을 매몰한 곳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나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해 93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등교가 정지되거나 개학이 연기될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사랑과 은정속에 커가는 행복

비전향장기수 김용수동지의 가정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믿음과 사랑에는 충성과 의리가 따라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많다.

우리가 비전향장기수 김용수동지의 가정에 큰 경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당도한것은 며칠전 저녁이였다.

넓고 훈훈한 방안에 들어서니 김용수동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빙 둘러앉아 박사증서와 박사메달을 돌려보며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력사학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김용수선생님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제일처럼 뛰여다니며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박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의 한 식솔로 사는 긍지와 기쁨을 한껏 느꼈습니다.》

따뜻한 인사말이 오가는 속에 박사증서와 박사메달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느라니 우리의 눈굽도 저절로 뜨거워났다.

이때 김용수동지의 조용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시라면 저 남쪽에서 벌써 저세상사람이 되였을 제가 조국의 품속에 안겨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는 행운을 지니였고 이번에는 력사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은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의 태양이십니다.》

정말 그렇다. 김용수동지는 남조선의 감옥에서 얻은 심장병으로 늘 시한탄을 안고사는 몸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능한 의사들에게서 심장수술을 받아 병을 깨끗이 털어버리도록 하여주시였다. 그가 병원문을 나서던 날은 몇해전 이른 봄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속에 그는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았다.

얼마나 고마운 어머니조국인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손에 총을 잡고 위훈을 세운 그를 조국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시켜 대학교단에 세워주었다. 그 은덕에 보답하고저 김용수동지는 조국통일의 길에서도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채택소식에 접한 그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내 조국의 하늘같은 은덕에 좋은 교재를 만들어 보답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그는 조국에 돌아오는 날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쳤다. 그가 기증한 수많은 자료들은 조선콤퓨터쎈터의 연구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김용수동지는 다시 교단에 선 심정으로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교재도 집필하였다. 수개월간에 걸치는 집필의 나날 그의 방에는 밤에도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이렇게 되여 그가 집필한 교재들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어학습의 길동무로 되고있다.

지난해초 김용수동지는 새로운 도서를 내놓기로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여 나온 도서는 보답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충심으로 받드는 김용수동지의 깨끗한 마음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학예술, 력사, 지리, 풍습, 기념일, 생활세태 등 여러 분야의 상식자료들이 간결하면서도 통속적으로 서술되여있으며 그와 관련한 유래들도 과학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해설되여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책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순결한 애국의 땀을 바쳐온 비전향장기수 김용수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그의 가정에서 자랑거리는 그것뿐이 아니다.

하얀 벽면에는 연풍혁명사적관 관장이였던 그의 안해 허정복녀성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기 맡은 초소에서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하도록 하시였다. 그의 딸 김혜성동무도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시켜 수도의 봉사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존엄높은 삶의 절정에 오른 김용수동지와 그의 가족,

김용수동지는 박사학위증서를 두손에 받쳐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이렇게 격정을 터치였다.

《아, 은혜로운 **김정일**장군님!

장군님의 품은 그늘이 없는 해빛입니다. 장군님을 떠나서 우린 못삽니다.》

그는 우리와 헤여지면서 이런 말을 곱씹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품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의 상상봉에 올랐습니다. 남은 생을 강성대국건설위업에 깡그리 바치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정 옥

력사의 광풍을 길들이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불멸의 업적

뜻깊은 2월이 왔다. 조국땅 어디서나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선군조선의 영웅서사시가 장엄하게 펼쳐지고있다. 사람들은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자랑찬 력사에 대하여 되새겨볼 때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적신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모진 광풍을 짓누르며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돌이켜보면 20세기 말엽에 와서 세계사회주의위업은 예상밖의 좌절과 쓰라림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의 투항, 변절에 의해 세계의 면전에서 사회주의위업이 흙탕칠을 당하였다. 사회주의위업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었다. 이 엄숙한 시기에 세계사회주의운동에 재생의 빛을 주고 활력을 부어주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시여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의 원인과 력사적교훈,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과학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로작의 구절구절마다에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고 승리에로 이끄시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느끼였다.

위대한 사상은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법이다. 무한대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 승리의 기치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당선언〉》, 《캄캄한 밤에 항행하는 배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 기치밑에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떠밀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로씨야의 한 정당지도자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광풍이 세차게 몰아치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그 누가 감히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재건시킬데 대한 글 한쪼박 써낸적이 있었는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단신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해나가고 계신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구원자, 수호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리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은 사회주의가 력사무대에 《우연히 출현한 비과학적리념》이며 사회주의사회가 《전도가 없는 사회》인것처럼 헐뜯으며 훼방하던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파멸을 선고하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신을 안겨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세계는 잊지 않고있다. 《사회주의종말》을 운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잡소리가 류행가처럼 소란스럽게 나돌고있던 때에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평양선언이 발표되던 그 력사적순간을.

평양선언이 채택되던 그 시기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 계시는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일시적위기에 처하여 진통을 겪고있던 세계사회주의운동에 활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떠밀어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령도의 분망한 날과 날들을 보내시였다. 평양선언발표 5돐을 앞둔 주체86(1997)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혁명적당을 건설하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평양선언에 서명하는 정당들이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이며 대중적인 당을 건설하고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의 뉴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와해말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전술은 분쇄되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자기의 대오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앙양의 길로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인류의 미래이며 리상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는 세계를 격동시키고 **김정일**열풍을 안아온 그이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의 나날에도 세차게 맥박쳤다. 주체90(2001)년 8월 찌는듯 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로씨야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찾으시여 화환을 진정하고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레닌의 혁명활동사적과 순양함 《아브로라》호의 포성으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첫시작을 알린 력사가 깃들어있는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도 방문하시였다. 이 감동적인 소식은 세계적인 파문과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도그럴것이 쏘련해체후 10년동안 로씨야를 찾은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레닌묘를 방문하고 경의를 표시한적이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레닌묘와 레닌의 사적이 깃든 도시를 찾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진정한 혁명가들의 순결한 도덕의리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시였다. 진보적인류가 받아안은것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진보적인류는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승승장구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진보적인류에게 사회주의의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전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대하여 말할 때면 우리는 그이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정립하시고 불철주야로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은 그대로 사회주의결사수호의 길이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의 그날로부터 얼마나 준엄한 날들이 이 땅우에 흘렀던가. 국제무대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는 제국주의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고있었다. 특히 9.11사건을 계기로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선포한 미국은 무력침공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무참히 짓밟았다. 저들 주도의 일극세계를 꿈꾸는 미국은 침략과 전쟁의 화살을 반제자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에로 돌리였다. 미국방성의 책략가들은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작전안을 이미 짜놓았으며 미국무성의 우두머리들은 조선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비렬한 모략을 꾸미였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우리 나라를 주시하였다. 조선은 세계의 초점으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으로 되였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을 겨냥한 제국주의세력의 군사적포위망이 형성되고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적들의 언론전, 심리모략전이 맹렬히 벌어졌다. 기승을 부리는 련합된 제국주의의 횡포에 과연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제사회는 이러한 우려와 불안속에 조선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사람들의 예상과 억측을 완전히 뒤집었다. 포성없는 이 전쟁에서 승자는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던 미국이 아니라 위대한 선군령장이 이끄시는 사회주의조선이였다. 선군의 위력은 미국이 쳐들었던 침략의 몽둥이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앞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위력한 선군정치의 포성을 장엄하게 울리시며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세계의 정치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조선이 처한 환경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주정치라고 칭송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선군정치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이 아니라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승리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평화가 지켜지고 세계사회주의위업, 자주화위업이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것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기 위한 시대적흐름이 날로 거세여지고있다. 이것은 선군정치야말로 인류의 반제자주, 평화위업의 승리의 기치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만능의 보검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립증해주고있다.

세계 수억만 인민들은 선군태양이 밝혀주는 사회주의의 길, 세계자주화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선군태양이 빛나는 21세기는 자주위업승리의 세기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배금희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 정치

국제사회계가 경탄

인류정치사에 길이 빛날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준엄한 선군혁명의 년대기에 자랑찬 승리만을 아로새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칭송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도미니까혁명적대안당 총비서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조선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는 기쁜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비결은 **김정일**동지의 신비로운 정치에 있다고 격찬하였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캄팔라시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신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세계적인 걸출한 령도자로 명성을 떨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먀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은 조선력사에서 전례없는 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위대한 창조의 기치이며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조선식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게 하는 비약의 기치이다.

선군령장이신 **김정일**각하를 당과 군대,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슴에 새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에서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의 보검이라는 생동한 규정어로 실생활에 구현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을 성과적으로 진척시키고있다.

조선의 이러한 노력과 거창한 진군은 국제문제들에서 이 나라가 주도권과 견결성을 발휘하게 하는 담보로 되고있다.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난해 조선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21세기의 새로운 년대들도 로숙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날것이다고 확언하였다.

요르단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은 도서 《**김정일**선군정치론》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현실을 통하여 실증됨으로써 세계적판도에서 선군정치지지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선군정치처럼 하나의 정치방식이 짧은 기간에 이렇듯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한 례는 찾아볼수 없다.

선군조선이 있어 행성우에 자주위업승리의 기발이 펄펄 휘날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협조

우크라이나와 뽈스까가 3일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2일 꾸바와 볼리비아는 여러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건을 채택하였다.

체육발전조치

먀마정부가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 국가체육촌을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만달라이시에 부지면적이 74.9ha에 달하는 체육촌이 건설되는데 여기에는 축구경기장, 수영관, 력기관, 보링관, 사격장 등이 일떠서게 된다.

대학건설

가나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대학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7일과 8일 볼타주와 브롱 아하포주에서 의학대학과 동력 및 자원개발대학건설 착공식이 각각 진행되였다. 현재 이 나라에는 8개의 국립대학이 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투쟁속에 이룩된 값비싼 승리

지난 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슬람교혁명승리 32돐에 즈음하여 자체로 제작한 인공지구위성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이란대통령과 국방상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전시회장에는 가까운 시기에 궤도에 진입될 4개의 새로운 우주기구들인 《파쥬르》, 《라싸드》, 《아미르 카비르—1》, 《자파르》가 전시되였다. 전시회장에서 참관자들은 또한 현대화된 우주로케트 《카베슈 갸르—4》와 우주과학분야의 새로운 성과들을 볼수 있었다고 한다.

이란의 첫 위성 《오미드》는 2009년 2월에 궤도에 진입하였다. 전망적으로 이란은 우주에 사람을 올려보낼 계획이다. 우주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준 이번 행사는 이란의 첨단과학기술발전수준과 국력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된다.

오늘 이란인민이 경제, 국방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서 달성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이란인민이 이룩한 성과들마다에는 혁명의 전취물과 나라의 자주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값비싼 투쟁과 꾸준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이란은 세계적으로 원유가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친미독재자였던 파흐라비황제집권시기에는 이 나라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생산된 원유가 인민의 재부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독점자본가들의 리윤추구의 대상으로 되였었다.

1979년 2월 11일 이란인민은 전인민적봉기로 황제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교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이란인민의 오랜 기간에 걸친 반군주, 반제투쟁의 결실이였다. 이슬람교혁명의 승리는 이란인민의 력사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이때부터 이란인민은 자기의 손으로 자주적인 새 생활창조의 길을 개척하게 되였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이란인민의 투쟁은 이슬람교혁명승리후 끊임없이 강화발전하여왔다. 오늘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고있는데 위구를 느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이란을 거꾸러뜨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복잡하게 론의되고있는 이란의 《핵무기개발》설도 서방세력들이 꾸며낸 날조설이다. 특히 이란을 《악의 축》으로 선포한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이란을 제압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중동지역 전반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반이란압살책동에로 계속 추동하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과 위협공갈도 이란인민의 반제자주정신을 꺾지 못하고있다.

이란인민은 《독립, 자유, 이슬람공화국》의 리념밑에 적들의 반이란책동을 짓부시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와 발전이 이룩되고 국방력이 강화되고있다. 이란인민은 적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군사적대응태세를 갖추고있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총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인민은 적들을 단매에 쳐물리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은 적들의 있을수 있는 무력침공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서방의 경제제재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오늘 이란인민은 이슬람교혁명승리 32돐을 맞으며 자기들이 걸어온 자랑찬 투쟁과 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조국과 이슬람교혁명을 견결히 수호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이란인민의 뜻깊은 명절을 열렬히 축하하며 그들의 정의의 위업에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전영희

서방식《민주주의》가 가져다준 후과

서방식《민주주의》와 다당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최근 정치적혼란과 폭력사태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꼬뜨디봐르의 정치정세를 들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직을 둘러싸고 지난 2개월동안 정치적혼란과 류혈적인 충돌이 계속되여 사회적안정과 주민들의 생활이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12월초 꼬뜨디봐르선거위원회는 11월말에 진행된 대통령선거 최종투표결과 이전 수상 우아따라가 승리하였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 나라 헌법위원회가 그 결과를 무효로 하고 대통령이였던 로랑 그바그보를 승리자로 선포하였다.

그바그보는 우아따라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기를 거절하고 12월 4일 대통령취임선서를 하였다.

같은 날 우아따라도 자기딴의 대통령취임식을 진행하여 나라에 2명의 대통령이 생겨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결과 둘로 갈라진 정치세력들이 충돌하고 무질서가 조성되였다.

유엔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1월 20일까지 이 나라에서 폭력사태로 26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만 9000명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피난하였다. 외신들은 꼬뜨디봐르사태가 자기 나라의 특성과 조건에 관계없이 서방식《민주주의》를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평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꼬뜨디봐르는 1990년에 서방의 압력밑에 이른바 서방식《민주주의》를 받아들여 다당제에 기초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때로부터 꼬뜨디봐르에서는 정치적불안정이 지속되였으며 지난 20년동안 대통령선거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류혈적인 충돌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시기 아프리카의 사하라이남지역에서 비교적 발전된 나라로 인정되였던 꼬뜨디봐르에서는 서방식《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한심한 지경에로 령락되였다.

서방식《민주주의》가 몰아온 파국적후과는 비단 꼬뜨디봐르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랭전후 아프리카의 과반수 나라들이 서방식《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다당제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그 무슨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행의 화근만을 가져다주었다.

소말리아가 《다당제민주화》바람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무정부적상태의 내전에 시달리고있으며 케니아, 짐바브웨, 모리따니, 마다가스까르 등 나라들에서 걸핏하면 폭력사태들이 발생하고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아프리카뿐아니라 다른 지역 나라들에서도 서방식《민주주의》로 인한 정치적불안정과 폭력적인 충돌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선거위원회가 대통령당선자를 선포하면 다른 후보들이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항의시위들을 부추기며 종당에는 류혈적인 충돌이 초래되게 하는것이 바로 서방식《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나타나고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제반 사실은 서방식《민주주의》의 해독성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민주화》타령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령토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도전적인 행위를 단죄

로씨야외무성이 7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부꾸릴렬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도전적인 행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성명은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군 하는 《북방령토의 날》행사가 이번에는 로씨야에 대해 특별히 도전적인 분위기속에서 벌어졌으며 거기에서 합법적인 로씨야령토인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는 무근거한 소리들이 터져나왔다고 규탄하였다.

이 행사에서 요란스레 울려나온 대결적인 발언들은 일본당국이 실시하는 정치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일본당국이 고의적으로 반로씨야적인 사회여론을 조장시키고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는 용납할수 없는 일본당국의 주장에 견결히 항의함과 동시에 일본의 령유권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을 천명하며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한편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는 로씨야대통령의 남부꾸릴렬도방문을 《용서할수 없는 폭거》로 묘사한 일본수상의 발언을 《확실히 외교적이지 못한 말투》로 락인하였다.

본사기자

음흉한 속심이 숨겨진 위선적인 완화놀음

최근 미국이 《대꾸바려행 및 송금제한완화》조치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학생들과 종교단체들이 꾸바를 방문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인들이 일정한 량의 돈을 꾸바에 송금하는것도 허용되였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여러 비행장들에서 꾸바행비행기들에 대한 봉사도 진행할것이라고 하고있다. 이미 그것을 시작한 비행장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꾸바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 꾸바인민들을 위한것》으로 묘사하고있다. 이것이 과연 진심이겠는가. 공정한 언론들은 그것을 앞뒤가 다른 미국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있다.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이번에 미국은 꾸바에 대한 《려행제한완화》조치를 미국식《자유, 민주주의》가치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미국인대학생들과 종교단체들에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인들이 꾸바에 송금하는 경우 그 대상이 꾸바정부 성원이나 공산당원이 아니여야 한다는것을 못박아놓았다. 그 의미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보건대 미국의 《대꾸바려행 및 송금허용》놀음에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그 무슨 《완화》조치를 꾸바내부에 쐐기를 치고 불신과 와해를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작전으로 보고있다.

미국이 진심으로 꾸바와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꾸바인민들을 생각한다면 꾸바에 대한 려행 및 송금대상에서 제한이 없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있다. 미국이 대꾸바봉쇄를 철회할데 대한 유엔결의리행은 뒤전에 밀어놓고 상대방의 목을 계속 조이면서 그 무슨 《완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꾸바적대시정책은 본질상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나지금이나 미국은 변함없이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꾸바의 합법적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꾸바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여왔다는것은 세계에 잘 알려져있다. 미국은 혁명승리후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길을 선택한 꾸바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압살하려고 회유와 기만, 군사적위협과 공갈 등 갖은 책동을 일삼아왔다. 꾸바가 그에 수그러들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자 미국은 비렬하게도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매달렸다. 이로 하여 꾸바는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었으며 수많은 꾸바인민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미국의 악랄한 반꾸바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꾸바를 고립질식시켜 이 나라 정부를 전복하려는 일종의 《정치 및 경제》전쟁이며 악랄한 주권침해, 인권유린범죄이다.

미국은 저들의 추종국들을 동원하여 국제무대에서 꾸바를 이른바 《문제성》있는 나라로 몰아대기 위한 책동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꾸바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 반꾸바책동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꾸바에 있는 범죄자들을 《자유를 향유하려는 국민》들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인권보장》을 운운하는가 하면 꾸바의 해당 기관에서 반국가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것을 터무니없이 《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있다. 지어 꾸바에 서방식《정치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까지 들이대고있다. 말하자면 꾸바가 반국가범죄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이 제멋대로 날치게 하라는것이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꾸바에 《테로지원국》감투까지 씌우며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고있다. 꾸바가 테로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것은 국제사회계는 물론 미국내에서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꾸바에 기어코 《테로지원국》모자를 씌우는것은 분명히 불순한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것이다.

미국은 꾸바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위해 비렬하게도 반꾸바방송과 같은 심리모략전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다. 미국이 자국내의 19개 장소에서 30개의 주파수로 꾸바에 대고 테로와 제도전복 등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방송을 진행하고있는 사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의 반꾸바방송은 수십년동안 계속되면서 날로 확대강화되여왔다. 미국이 노리는것은 한줌도 못되는 반동분자들을 사촉하여 꾸바인민들속에 불평불만과 불신, 반목을 조장시키고 내부를 와해분렬시키며 나아가서 제도전복흉계를 실현하자는것이다.

미국이 대꾸바적대시정책, 봉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두 나라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풀리기 어렵다.

미국은 서툰 요술을 부리지 말고 시대착오적인 반꾸바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학남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미국의 새로운 무장장비개발책동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장장비개발책동에 발광적으로 달라붙고있다.

5일 미해군은 캘리포니아주의 에드워드공군기지에서 군수독점체인 노스로프 그라만회사가 제작한 다음세대 스텔스무인폭격기 《X—47B》에 대한 시험비행을 진행한데 대해 발표하였다.

레이자유도폭탄을 탑재할수 있는 이 폭격기는 항공모함에서의 리착륙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영형편 악화, 실업자 증대

— 프랑스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제작업부문 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다.

1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에 제작업부문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2.3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후과로 뽈스까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고있다.

4일 이 나라 로동성은 올해 1월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211만 16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15만 6900명 증대된것이다. 이로써 나라의 실업률은 13.1%를 기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1028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